하나님과 백년해로 없으면 영생도 없다

(빌2:12~18)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년해로 없으면 영생도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과 백년해로 하지 못하면 영생도 없습니다.

아주 옛날 중국의 어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시를 하나 읊었습니다.
그것이 시경의 패풍 편에 '격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있는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생결활(死生契闊) 여자성설(與子成說) 집자지수(執子之手) 여자해로(與子偕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사생결활(死生契闊),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고
여자성설(與子成說), 당신과는 굳게 언약하였소

집자지수(執子之手), 섬섬옥수 고운 손 힘주어 잡고
여자해로(與子偕老), 단둘이 오순도순 백년해로하자고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고
당신과 굳게 언약하였소
섬섬옥수 고운 손 힘주어 잡고
단둘이 오순도순 백년해로하자고

그런데 백년해로하자고 그렇게 손 붙잡고 약속을 했건만 지금 내 처지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서 언제 적군의 창과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량한 신세입니다.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는데 집에 두고 온 아내가 그립기만 합니다.
그 아내와 백년해로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과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아내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백년해로할 수 있을지…

내용을 알고 보면 참으로 처량한 시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생즉동실(生則同室), 살아서는 같은 방을 쓰고,
사즉동혈(死則同穴), 죽어서는 같은 무덤을 쓰네.

모든 부부의 바라는 바일까요?
모두가 기쁨과 환희에 차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가만 보면 백년해로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참 다양하지요.
전쟁이나 질병 때문에 먼저 죽는다든지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치더라도, 그런 것 말고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데, 가장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는 동안에 전혀 백년해로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백년해로, 백년을 함께 늙어가는 것,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결혼식과 같은 관계가 있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백년해로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백년해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몸이

늙어가지 못하면, 영생 못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낯선 말씀 아닙니까?
왜 구원을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만 하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왜 완전히 말이 달라지는가?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 무섭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기쁨과 행복함과 감격의 탄성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항상 복종과 떨림, 이렇게 해야 될 거라면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못 얻었다고 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걱정도 되고.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얻었기 때문에 내 현실적인 삶에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구원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 얻어서 밥이 생겼습니까, 떡이 생겼습니까?
구원 못 얻은 사람은 밥 안 먹고 삽니까? 구원 못 얻은 사람은 직장이 없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무슨 현실적인 변화나 느낌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혹시 잠깐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는 것이 기억에 가물가물할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원이 뭔가를 처음부터 다시,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얻자 이거예요.
다시 얻고 다시 이루어나가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감격이 없는 것도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분명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구원 얻고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구원 얻고 구원을 이룬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ㅇㅇ으로부터 끄집어내지는 겁니다.
뭐로부터 끄집어내지는 겁니까? 죄로부터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빗나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빗나간다, 하마르티아.
무엇이 빗나간다는 겁니까?
마음이 빗나간다는 것이고, 뜻이 빗나간다는 것이고, 우리 힘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좋아한다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좋아하는 걸 뜻합니다.
무엇에 힘을 들입니까? 좋아하는 것에 힘을 들입니다.
나빠하는 것에 힘을 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 힘을 들여요.
따라서 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향하고 뜻이 향하고 힘이 향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구원이 구원 되려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이 다른 것을 향해 갔던 만큼, 내 마음과 내 존재가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죄 씻음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마음과 힘과 뜻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가야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아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과 뜻과 힘이 가고 있는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저렇게 죽으신 것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른 데다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의미는 그렇게 더러워진 나를 씻어주심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죽으리라, 내 뜻도 죽으리라, 내 힘도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 하니라'
왜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 죽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외에 내가 마음을 향하고 뜻을 향하고 힘을 향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세상 안에 있으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갖고 싶어 하고 소원하게 되는 모든 대상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구원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힘과 뜻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상태가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걸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하고만 맺어지겠다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고 하나님과만 내 마음이 연합하겠다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에서 맹세했으면 백년해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년해로를 못하고 3년 안에 깨지는 쌍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3분의 1이 3년 안에 깨지고, 강남 지역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결합이 허락된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허락됐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백년해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돈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연합,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제일 먼저 연합하는 이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이 이루지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그 얻은 구원이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유지해나가라'는 얘기에요.
조금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자식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자식과 연합해버려요, 빗나가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데, 자식에게로 가버립니다.
자식에게로 마음이 가서 자식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건 죄에요.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안 찾아집니다, 이미 마음이 빗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룹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대상들이 있을 때마다 그 대상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걱정하는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돈 걱정 좀 하는데, 뭐 어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돈 걱정하는 게 이상한가? 돈 욕심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훔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라에 무슨 문제가 좀 생겨요, 독도 문제로 자꾸 망발을 하는 일본 때문에 마음이 쓰여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식 걱정을 좀 합니다.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얘기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결혼은 해놓고 백년해로하지 못한 채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이 가서 다시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이 깨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이것을 알아라!'라는 얘깁니다.
나라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내 건강 걱정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결혼이 깨지는 거라는 거죠.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기까지 하나님과 백년해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게, 결혼식만 해놓고는 결혼한 사람들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 결혼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교리를 가지고, 캘빈이 뭐라고 그랬다, 무슨 종교개혁 신앙이 뭐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한 번 직면해보세요.
신인협동설이냐 아니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같이 협동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교리적인 문자 갖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는 온통 마음을 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대로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대로 끌려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다, 하나님과의 백년해로가 깨지는 거다, 하나님과의 결혼이 깨지는 거다, 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결혼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뒷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백년해로해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때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의 형태로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돈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자식에게도, 나라에도 내 건강에도 빼앗기지 말고,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라, 이게 하마르티아, 마음이 빗나가지 않는 상태, 죄가 아닌 상태다.
그렇다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육체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세상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의 한 형태가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더니 성령님이 역사해주시는 바람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느껴지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바랄 것이 없는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유보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와 결혼해서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이 기쁨을 유지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생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돈이 치고 들어와요, 자식이 치고 들어오고 건강이 직장문제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때, 내가 마음을 이것들에 빼앗기면 죽는 거다, 하나님과의 백년해로의 결혼이 끝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십자가 붙잡고 복종해서 죽어버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힘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거는 결혼식과 같아요.
그 다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백년해로해야 됩니다.
그 백년해로를 해야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 다른 것에 빼앗겨요.
결혼식 하고는 나가서 온갖 다른 이성들과 놀다가 그들과 놀다가 생긴 문제를 남편한테 와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게 요즘의 신앙형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네 입에서 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율법 책을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 문제가 생길 때 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여호수아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
내가 돈이 없게 돼서 망하더라도…
보세요, 그런 걱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돈이 문제인데 돈 걱정도 못하다가 돈이 없어서 진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걱정도 못해요.
그러면 자식 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리라 라는 각오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돈을 벌려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끙끙대고 살아가는 것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돈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백년해로가 내 목적이다,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백년해로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자녀 잘 기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백년해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훨씬 쉬워요.
훨씬 행복하고 그리고 사업장에 자식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 대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마귀가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돈 걱정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 자식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돈 걱정 자식 걱정 안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망하면 망하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다, 살았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신 그 주님의 행로를 따라서 내 마음도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보좌 옆에 계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인생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백년해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백년해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이 세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다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빈약해보이든 대단해보이든 상관없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빈약하다고 마음이 오그라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백년해로 할 것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것이냐, 이것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이 세상일에 빼앗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결혼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백년해로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짐으로써 사도바울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